

OVERWATCH 2

충격파



BRANDONA EASTON의 단편 소설

이야기  
*BRANDON EASTON*

편집  
*CHLOE FRABONI*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JUSTIN GROOT,  
GAVIN JURGENS-FYHRIE, AARON KELLER,  
MIRANDA MOYER, DION ROGERS, ARNOLD TSANG*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디자인  
*COREY PETERSCHMIDT*

일러스트  
*VALENTINA REMENAR*

소전 오리지널 콘셉트  
*ARNOLD TSANG*

소전 오리지널 모델  
*PAUL WARZECHA*

소전 오리지널 무기 모델  
*KYLE RAU*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영 스트리트와 에글린턴 애비뉴 이스트 교차로, 동부 표준시 오전 10:05

소전은 공중에서 깨어났다. 의식을 잃은 건 찰나에 불과했지만, 충격전에선 바로 그런 순간에 삶과 죽음이 갈렸다. 그럴 때면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소전은 그게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전장이라면 이미 충분히 경험해 봤기에, 그런 순간에 정신이 자기 보호에 전념하는 건 충분히 경험해 왔다.

소전은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충격이 온몸에 파문을 일으키고, 고통스럽게 따끔거리는 아픔을 발가락부터 치아까지 온몸에 흩뿌렸다. 다행이네, 그녀는 생각했다. 신경은 아직 정상인 모양이야. 그때 귀 뒤쪽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공신체 임플란트에 내장된 통신 시스템에서 간헐적으로 송출되는 잡음과 교신에는 걱정과 경고의 기색이 가득했다.

“체이스, 여기는 트렘블레이! 듣고 계십니까? 반복-”

트렘블레이의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떨리더니 곧 폭발하는 잡음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통신 시스템이

폭발의 충격파에 손상되었거나, 트렘블레이 요원과 제어 센터가 공격을

받았거나. 둘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다. 도시의 방어를 지휘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려면 트렘블레이의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공공 비상 방송 시스템이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도시 전체에 지시를 내렸다.

“시민 여러분, 즉시 연락선 터미널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할 선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남아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연락선 터미널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대피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소전은 별떡 일어서서 기운과 평정심을 회복하며 시야가 또렷해지길 기다렸다. 그녀는 소총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고, 눈을 총열 끝의 조준경에 고정했다. 주위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와 이글거리는 불길이 최악의 상황을 확인해 주었다. 널 섹터가 거대한 중화기 포격 유닛을 토론토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 중 하나에 떨어뜨렸고... 해당 유닛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다.

거리는 어느새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불과 10분 전, 짙은 뭉게구름 사이로 널 섹터 지휘함이 강하여여 도시 상공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널 섹터 유닛 수백 기가 토론토 미드타운과 도시 남부 항만 지역에 나타났다. 소전은 널 섹터와의 교전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적의속공 전술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적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목표를 제압하는 동시에 소수의 타격 부대를 동원하여 핵심 전력망 분기점과 대도시 보안 인프라의 거점을 공격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널 섹터 침입자와의 마지막 교전 당시와는 달리, 이번 공격은 순수한 파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면의 전략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선전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지만, 메시지를 듣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군사 전략가인 소전은 널 섹터의 공격 패턴에서 드러나는 무자비한 효율성에 감탄했지만, 또 한 번의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에 실려 과열된 모래와 잔해가 날아오는 것을 보자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소전은 폭발의 충격에 대비하여 인공적으로 강화된 육체를 다잡았다.

그녀 뒤쪽에서 캐나다군과 토론토 경찰의 전술 조직인 위기 대응팀 소속 병력이 진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폭발의 충격파가 파와 육신으로 이루어진 병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리라는 걸 알았다.

“엎드려!” 소전이 외치자 병사들은 그대로 엎드렸다. 대부분은 충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운이 나빴던 몇몇 병사는 파티에서 색종이 조각이 흩뿌려지듯

하늘로 날아올라 상업 구역의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에 그대로 처박혔다. 연기가 걷히고, 소전은 충격에 휩싸인 채 뒤쪽에 늘어선 얼굴들을 바라봤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친구와 아군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삶과 죽음이 갈렸다.*

소전은 순간적인 상실로 감정적 충격을 받은 병사들을 억지로 끌고 गया 했다. 동료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더 지체했다가는 전투가 널 섹터에 유리하게만 흘러갈 것이다. 포격 유닛이 지면을 울리며 그들의 현재 위치를 향해 움직였고, 대포 팔은 회전하면서 또 한 번의 재앙 같은 연속 사격을 준비했다.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여기로 모여라.” 소전이 외쳤다. 그 목소리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자신감에 병사들은 다시 전투 태세로 돌입했다. “소구경 무기를 든 병사는 중화기 포격 유닛의 하부에 제압 사격을 집중하라. 에너지 기반 무기와 고폭탄을 소지한 병력은 전부 거리 양쪽으로 줄지어 서라. 버려진 차량을 임페물로 이용하라.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는 대포에 공격을 집중하라.”

마치 시계태엽처럼, 군 병력과 비상 태스크포스 경찰관들은 완벽하게 정렬된 도심 공격 대형으로 나뉘었다. 소전은 현장에 모인 경찰관과 병사 등다채로운 인원을 바라본 후, 망가진 시내버스의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가 적의 주의를 끌겠다.” 소전은 그렇게 말한 후 버스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인공 다리에는 추진기가 내장되어 있어, 소전은 대부분의 상대가 추격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슬라이드하고 점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끄러지면서 점점 더 속도를 높이고, 민간 차량과 트럭의 불타는 잔해를 풀쩍 뛰어넘었다.

소전은 이동하면서 에너지 소총을 몇 번 발사했고, 그녀의 정확한 사격에 포격 유닛은 전진을 멈췄다. 유닛의 대포가 움직이는 소전을 뒤따랐지만, 그녀가 워낙 빨라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경찰관과 병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탄환을 적 기계에 쏟아부었고, 그 몸체에서 우박 폭풍 속의 광둥처럼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전은 적의 중앙 결합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무기를 발사했고, 그러자 포격 유닛에서 주황색 연기와 불길이 솟아올랐다.

금속이 타오를 때면 으레 그렇듯 아찔한 냄새가 소전의 코를 가득 채웠다. 움닉 사태 때 처음 맡았던 그 냄새는 오버워치와 함께하는 동안에도

그녀와 줄곧 함께했다. 그녀는 남쪽으로, 온타리오호의 수변에 도시의 금융 및 여가 활동의 중심지가 모여 있는 영 스트리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토론토의 대도시권에는 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로 최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 있었고, 그들 중 아침 식사 이후 적 침략군이

나타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전은 구름 낀 하늘을 배경으로 쏟아져 내리는 널 섹터 낙하기에 집중했다. 그 치명적인 소나기가 시민들의 머리 위로 퍼붓고 있었다. 그녀가 도시 남쪽 끝에 있는 연락선 터미널에서 대피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대학살로 끝나고 말 것이다. 공공 기관들은 조직적으로 생존자들을 북부 교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그쪽에는 지상 공격의 완충 지대가 되어 줄 넓은 개활지와 산악 지형이 존재했다.

하지만 예글린턴 애비뉴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소전도 남쪽으로 이동해서 피난민을 안전한 항구 쪽으로 보내고, 도시를 한 블록씩 널 섹터의 손아귀에서 되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영 스트리트와 제라드 스트리트 이스트 교차로, 동부 표준시*  
오후 6:46

소전과 아군은 몇 시간에 걸쳐 몇 킬로미터 남쪽의 시내로 이동했다. 낙하기 하나하나에서 널 섹터의 전투 옴닉들이 나타났다. 널 섹터 돌격병과 절단 로봇은 오버워치 시절에도 싸워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추가 중화기 포격 유닛들도 연무를 뿜고 나타났다. 하지만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진 더 큰 낙하기에서, 소전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옴닉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병기의 영향력을 고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기존 버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지금 그럴 수는 없었다.

널 섹터의 모든 유닛에는 전략적 특기가 존재했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그런 특기가 활용되고 있었다. 널 섹터 돌격병이 침략군의 선봉으로 접근해 왔지만, 그녀는 새로운 옴닉 중 하나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건 일종의 호버 유닛이었는데, 탁월한 기동성 때문에 머리나 파워 코어를 조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블록씩 널 섹터의 손아귀에서 되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개선된 절단 로봇은 좁은 지역으로 침투해서 플라즈마 광선으로 아군 방어선을 절단했다. 하지만 이들도 또 다른 신형 유닛과 비교하면 별레처럼 보였다. 신형 유닛은 극단적으로 커다란 중장갑 탱크로, 머리에는 코뿔소 같은 뿔이 돌출되어 있었다. 이들 거수는 커다란 체격에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매우

# 소전도 남쪽으로 이동해서 피난민을 안전한 항구 쪽으로 보내고, 도시를 한 블록씩 널 섹터의 손아귀에서 되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빠르게 움직였다.

소전은 인공 눈 덕분에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유혈 사태의 현장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업그레이드된 감각에 저주를 퍼부를 수밖에 없었다. 널 섹터 돌격병들은 민간인들도심 지역의 좁은 콘크리트 협곡에 몰아넣었다. 지나치게 당황해서 달아나지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군중은 침략군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절단 로봇의 플라즈마 광선이 움닉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설치된 간이 방벽과 차량을 모두 찢어 버렸다. 소전은 한 절단 로봇이 열어 준 길로 코뿔소를 닮은 유닛이 들어가, 겁에 질린 민간인들이 헛되이 모여 있는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모습 앞에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정말 심각했다. 캐나다군 병사들과 비상 태스크포스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전의 간이 부대는 어느새 소속 부대원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부대로 전락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0명이 넘었는데, 소전은 음울한 침묵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오버워치 시절의 일을 정말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서도 후회 이외의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오랜만이였다. 그리움은 닳처럼 그녀의 목을 휘감는 듯했지만, 과거의 경험에 대해 불필요하게 감상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었다.

모든 게 붕괴된 후, 네가 원했던 게 그런 거 아닌가? 혼자가 되는 거?  
소전은 자신에게 상당히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어깨 너머를 돌아봤을 때, 가로등에 매달려 있던 윈스턴이 전장으로 날아들고, 잭이 언제나처럼 불굴의 정신과 전술적 감각으로 후방을 지켜 주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터였다. 벅속에서 따끔한 갈망의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죽었어. 그럴 이유도 있었고.

포격 유닛이 발사한 미사일이 소전의 머리 위로 솟구쳤다. 추진 연료로 사용된 화학 물질의 연무 때문에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녀는 경솔한 회상에서 퍼뜩 깨어났다. 투사체는 거리의 충격전을 피하려던 민간인 무리가 몸을 숨긴 커피숍으로 향했다. 폭발은 그 블록 전체를 뒤흔들고, 창유리를 깨뜨려 그녀의 병력에 유리 세례를 쏟아부었다.

소전은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공포에 얼어붙은 어린 소녀 둘을 향해 달렸다.

움직여! 소전은 생각했다. 그녀는 인공 신체의 힘을 총동원해 도약하며 근처의 널 섹터 유닛을 향해 수많은 탄환을 쏟아부었다. 널 섹터 돌격병 하나를 쓰러뜨린 후, 그녀는 그 사체를 들어 방패로 사용하며 아슬아슬하게 아이들 앞에 착지했다. 유리 눈보라가 널 섹터 돌격병의 몸체에 짙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사이, 소전은 한쪽 팔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다른 팔로는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유닛의 균형을 잡았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전이 물었다.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저기... 저 안에 계셨어요.”

동생이 카페가 있던 곳에 남겨진 둥근 불길과 연기를 가리켰다. 그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울음의 격류가 아이의 폐에서 쏟아져 나왔다.

소전은 그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아 줄 수밖에 없었다. 달리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그녀는 언니에게 탁 트인 길은 피하고 자기가 열어 주는 길을 통해서만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말해 주었다. 아이는 넋이 나간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두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았다.

소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었고, 그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가며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되기를 바라야 했다. 하지만 전쟁이 모두에게 상흔을 남긴다는 걸 그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래 살아남는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베이 스트리트와 웰링턴 스트리트 교차로 동부 표준시

오후 10:18

태양이 연기로 뒤덮인 지평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소전은 자기가 침략군에 작은 흠집이라도 내주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와 점차 줄어드는 아군은 대략 3 시간가량 동안 직접 수백 기의 널 섹터 유닛을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영



**소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었고, 그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가며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되기를 바라야 했다. 하지만  
전쟁이 모두에게 상흔을 남긴다는 걸  
그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래 살아남는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스트리트 아래쪽에 도착했고, 거기에서는 줄지어 선 마천루 사이로 온타리오호의  
상쾌하고 거친 물살을 볼 수 있었다. 영 스트리트는 정리된 것으로 보였기에,  
소전과 일행은 웰링턴 스트리트 쪽으로 꺾은 후 하키 명예의 전당과 법원 청사를  
지나 토론토의 뉴 퀸 스트리트에 있는 상업 및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 향했다.  
이곳의 콘크리트 길은 관광 명소로 가득한 막다른 길과 골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리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적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살상 지역이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기진맥진했지만, 소전은 민간인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줘야 했다. 병사인 그녀는 시가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한 사람을  
구출할 때마다, 세 사람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에너지 광선과  
감정이 없고 자비를 모르는 로봇의 세계에서 “방탄”이라는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널 섹터의 무기는 콘크리트와 유리, 강철을 축축한 화장지를 찢듯이  
잘라냈다.

오발된 광선이 병원의 전력 공급 장치를 절단하고, 학교 벽을 관통하고,  
러시아워에 지하철 터널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우주적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규모의 침략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널 섹터와의 마지막 교전 이후 5분이 흘렀다. 소전은 남은 부대의 상황을  
확인했다. 부대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전장에서 빠르게  
하나가 되었다.

웰링턴 스트리트를 따라 계속 나아가면서, 소전은 잔해 아래에 깔린 사체의 수를 셸다. 이제는 불지옥으로 변해 버린 곳으로 수많은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건물에는 아직 많은 사람이 살아 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을 구출하는 데 병력을 할애할 수가 없었다.

전쟁이 지독하리만큼 끔찍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여기에서는 영광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상상도 못 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의 생명이 꺼져 간 흔적뿐이었다. 소전은 요새화된 자택에 안전하게 남겨 놓은 자기 개 머피를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한밤중에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지만, 지금은 문가에서 그 개가 애처롭게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 치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제가 마치 십 년 전처럼 느껴졌다. 여긴 그녀가 사랑하고 보호했던 토론토가 아니었다. 이제 차가운 강철 손으로 땅을 파낸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다. 그 손도 그녀의 인공 손과 다를 게 없었다. 소전은 토론토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고, 검은 연기의 두꺼운 기둥들이 온타리오호에 비치던 옴닉 사태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눈을 몇 번 깜빡여 새로운 파괴의 현장을 뒤덮은 데자뷔의 음울한 장막을 걷어냈다.

우우웅!

포격 유닛 5기가 불타버린 시내버스의 차체와 예전 사업장들 위에 착륙했다. 유닛들은 동시에 수많은 미사일을 흩뿌렸고, 그 병기들은 마치 번개처럼 거리와 건물을 파괴했다. 근처의 법원 청사가 폭발하고, 사무용품과 불타 버린 옷들이 색종이 테이프 행진을 보여주듯 하늘을 뒤덮었다.

남은 부대원은 대부분 이 연속 포격으로 파괴되었다. 나머지는 독성 잔해의 해일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소전의 두 눈이 주위에서 불타오르는 살육의 현장 위를 널뛰었다.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의 파문이 번져 나왔다. 그녀는 타들어 가는 목구멍 안쪽으로부터 목소리를 끄집어내, 눈을 자극하는 주황색과 검은색 화염 구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모든 생존자는 남쪽 연락선 터미널로 이동하라. 동이 틀 때까지 어둠 속에 몸을 숨겨라. 민간인을 발견하면, 안전하게 지켜 줘라! 재집결할 수 있다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라.”

소전은 잠시 기다렸지만, 멀리서 널 섹터 유닛이 쉬지 않고 내는 덜그럭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전은 잠시 쓰러진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 후, 노출된 지하철 터널의 입구로 뛰어내렸다.

레이크 쇼어 블러바드 웨스트의 스파다이나 애비뉴 동부

₩표준시 오전 9:48

아침 햇살이 황폐해진 대지를 밝히고, 가느다란 노란색 햇빛의 리본이 터널 안쪽에 흐릿한 조명을 드리웠다. 소전은 하버프론트 센터의 출입 해치를 열고 기어 나왔다. 그곳은 부유한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마련되어 있는 거대한 해변 리조트였다. 온타리오호를 조망하는 아름다운 풍광, CN 타워, 광활한 연락선 운행망을 연결하는 복잡한 항구에 이 지역 최고의 요리까지. 그녀는 지친 눈으로 주변 지역에 적대적 세력이 없는지 살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검은 연기뿐이었다.

자신감과 지각 능력이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했다. 트렘블레이와의 연결은 두절됐다. 그녀는 인명을 구조하겠다고며 파멸이 예정된 원정을 이끌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도시 끝자락에서 잠시 안전하게 홀로 남아, 그 도시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추가 널 섹터 낙하기가 녹아내린 납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건물을 꿰뚫고 지면을 때려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다.

아무리 전투로 단련된 병사라 해도, 아무런 대비 없이 사라져 갈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강화된 신체 덕분에 필요하다면 몇 시간 더 싸울 수 있었지만, 과연 그렇게 지켜야 할 게 남아 있을까? 토론토를 지키러 올 사람은 없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멀어져 가고,

캐나다군과 경찰 병력이 적에게 압도되는 모습이 보였다. 남아 있는 이들도 끝없이 밀려드는 널 섹터 침략군 무리에게 굴복하는 것도 시간문제였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줘요!”

망설임과 후회의 안개가 소전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빙글 돌아서며 소총을 날카롭게 정밀한 위치까지 들어 올렸다. 그 구역 아래쪽에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유니폼을 입은 옴닉이 널 섹터 돌격병에게 쫓겨

그녀는 인명을 구조하겠다고며 파멸이 예정된 원정을 이끌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도시 끝자락에서 잠시 안전하게 홀로 남아, 그 도시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널 섹터 돌격병은 소총의 사거리 밖에 있었지만, 소전은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경고 사격을 몇 발 발사하여 널 섹터

**그녀는 인명을 구조하겠다고  
파멸이 예정된 원정을 이끌었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도시  
끝자락에서 잠시 안전하게 홀로  
남아, 그 도시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돌격병이 무고한 움닉을 무시하게 했다.

이상하게도, 널 섹터 돌격병은 소전을 공격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너머로 대충 무기를 발사하면서도 시선은 목표물에만 고정하고 있었다. 소전이 돌을 향해 달려며 총을 몇 발 더 발사했고, 소총의 탄환이 공격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리까지 늦지 않게 들어갈 수 있기만을 바랐다. 널 섹터 돌격병은 움닉의 목을 붙잡아 발버둥 치고 비명을 지르는 그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고, 공포에 질린 외침은 즉시 멈춰 버렸다.

골목에 도착한 소전은 조심스럽게 건물 너머를 엿봤다. 널 섹터 돌격병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생각은 없었다. 널 섹터 돌격병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준비를 마치고 골목으로 들어선 소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널 섹터 유닛이 평범한 움닉을 납치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널 섹터가 갑자기 포로를 확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그런 행위에는 논리적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찬찬히 골목을 살폈지만, 열린 하수도 입구에서 풍겨 나오는 수많은 끔찍한 것들의 악취를 제외하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소전의 통신 시스템이 그녀의 의식에 따끔한 자극을 주었다. “여기는 소전. 응답하라.”

“체이스! 트램블레이입니다... 목소리 들으니 좋군요. 통신이 끊어진 이후로 계속 당신과 연락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용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호를 조정해서 안전한 채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은요? 그쪽 팀은 괜찮습니까?” 소전이 목소리에 서린 안도감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괜찮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제어 센터는 아직 무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살아남은 병력 일부가 하버프론트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락선이 곧 탑승을 마치고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함선은 전부 거기 남아서 도심 지역에 고립된 시민들을 계속 탈출시키라고 명령을 내려 뒀습니다.”

대도시권 전체에 숨겨진 수천 개의 스피커에서 반복 재생되는 탈출 경보가 다시 울렸다.

소전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토론토 거리에서는 끔찍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녀의 초라한 전사 부대는 남쪽 수변으로 통하는 길을 열고 정부에 시민들을 탈출시킬 시간을 벌어 준 것이다.

땡! 땡!

소전은 그게 나무가 금속을 때리는 소리라는 걸 알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구방망이로 널 섹터 방아구를 때리는 소리였다. 뒤를 돌아보자 한 옴닉과 한 인간 여성이 널 섹터 돌격병과 진격하는 포격 유닛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런 적이 상대라면 둘의 생존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그들은 필연적인 결과가 도래하기 전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

둘은 어느새 널 섹터 돌격병들에게 포위되고, 적들은 주위의 다른 옴닉들까지 미지의 운명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소전은 오버워치의 신병으로 책과 함께 싸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사람이 빠르게 희생자가 되는 모습을 목격했었지만, 지금 소전의 눈에 희생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유와 안전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보였다. 사방에 피어오르는 불길과, 쌓여만 가는 희생자와 끔찍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뒤따랐던 병사와 경찰관, 긴급 구조 요원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소전은 커피숍에서 부모를 잃었던 두 소녀를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 어린 공포 너머, 서로 맞잡은 두 손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오직 전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무형의 가치, 바로 용기였다.

첫 번째 옴닉 사태 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덜한 상황에서도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도망치고, 항복하고, 공포에 몸을 웅크린 채 죽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과 옴닉이 어깨를 맞대고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었다. 자신들의 고향, 그녀의 고향 토론토를 지키기 위해.

소전은 널 섹터 침략자들을 정확히 조준하여 탄환을 연속 발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격에 적이 쓰러지고 인간과 옴닉이 탈출할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다. 또 하루 싸울 기회를 얻었다.

부우우우우웅! 출항하는 연락선의 기적 소리가 들렸다. 소전이 뒤를 돌아보자 첫 번째 민간인 무리가 안전한 온타리오호로 탈출을 시작한 모습이 보였다. 갑판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화창한 해안을 향해 떠나는 크루즈선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만의 반대쪽에는 모래사장도 카페일도 없었다. 거기 있는 건 오직 생존의 기회뿐이었다.

지하철 터널에서 탈출할 때 그녀를 가득 채웠던 피로와 여린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그녀를 앞으로 떠미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채웠다. 그 정도면 계속 나아가기에는 충분했다.

홀로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